

01 교회소식

하나님의 인도하심

최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때에 전 세계 영적 리더들이 '만민'을 만나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

참마음을 이루려면 (2)

진리에 자신을 비취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개함이 없는 큰마음을 이루며,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는 참사랑을 이뤄야 한다.

03 기획특집

말씀으로 인도받는 인생의 '길'

짧지만 긴 여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신앙칼럼을 통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길에 말씀의 등불을 밝힌다.

04 간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권능으로 당뇨병을 치료받고 영혼이 잘되는 축복까지 받은 유송열 장로와 홍수돌기염, 십이지장궤양 등 다양한 치료 간증.

만민뉴스

제843호 2018년 6월 17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하나님과 주님, 영혼을 사랑하는 만민의 사역

"하나님의 비전, 더 크고 놀랍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마짜쉬 목사 (이스라엘 하이파 영광의 왕 교회)

2005년, 만민중앙교회 비전트립팀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사역이 담긴 '권능' 비디오를 보면서 감탄과 함께 훌륭한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해 10월, 만민중앙교회 창립 23주년 기념행사와 2006년 7월, '이재록 목사 초청 뉴욕 연합대성회'에 참석하여 생명의 말씀과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고 영광 돌리는 권능의 역사를 목도하며 제 마음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2006년 10월, 이스라엘에서는 위성 안테나를 설치해야 기독교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으신 이재록 목사님께서 360 가정에서 기독교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낌없이 기쁨으로 내어주시는 목사님의 모습에서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진심이 느껴져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2007년 7월 25일, 나사렛을 시작으로 이재록 목사님의 3년간 이스라엘 선교가 시작되었고 전역을 다니며 권능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지요. 이에 감명받은 이스라엘 목회자들이 '크리스탈포럼'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재록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아시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변함없이, 영육 간에 저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제 아내는 2007년 말, 유방암 3기 판정을 받고 수술 후 항암치료를 하며 무척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 기간도 길고 완치도 어렵다 했지만, 이재록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선교를 오실 때마다 항상 기도해 주셨기에 신속히 완치되어 현재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크리스탈포럼 주최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대성회'가 열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ICC(국제컨벤션센터)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이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많은 영혼이 치료받고 응답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기독교계는 크게 부흥하고 있지요.

오직 하나님과 주님,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는 이재록 목사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앞으로 만민을 통해 이루실 비전들이 더 크고 놀랍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 기도의 응답입니다"

유리 코노발로프 목사 (우크라이나 천국의 문 교회연합 총회장)

저는 목회자로서 열정을 다해 사역하던 단체가 와해되면서 심한 좌절감에 빠져 참된 영적 지도자를 찾으며 기도하던 중, 만민을 만났습니다. 2009년 9월, 크리스탈포럼 목회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소식을 듣고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 이재록 목사님의 생명력 넘치는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목도하며 기도의 응답임을 확신했습니다.

2017년 5월,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은 매일 밤 교회에 모여 기도하였고, 하나님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에 큰 은혜가 되었지요. 더욱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가까이 보며 얼마나 사랑이 많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지 마치 영적인 아버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만민을 만나게 하심은 영육 간에 고통받던 우크라이나 영혼들을 위로하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성령의 복음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전파되어 크게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뉴욕 연합대성회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참된 신앙, 행복합니다"

황핑핑 선교사 (싱가포르만민교회)

2007년, 제가 싱가포르 극동방송 프로듀서로 재직할 당시의 일입니다. 시어머니를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 『민음의 분량』을 건네받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후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십자가의 도』 등도 단숨에 읽고, 이 책들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해 10월에는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하였는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셨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성전을 보며 이곳이 바로 내가 섬길 교회임을 확신하였지요.

2009년, 생후 7주쯤 된 아들 성은이가 고열이 지속돼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창백했고 황달 증세가 있으며 복부는 심하게 팽창된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당회장님께 기도요청 서신을 보내 기도받은 뒤에는 깨끗이 치료되었지요. 할렐루야!

그 뒤 저는 만민의 선교사가 되었고, 2012년 9월에 싱가포르만민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성도들은 당회장님의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기도를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천국 소망으로 행복이 넘칩니다.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만민중앙교회 창립행사

참마음을 이루려면 (2)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22)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Senior Pastor Dr. Jaerock Lee

- 예수교연합성결교회 총회장
- (사) 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
- (사) 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지난 호에서는 우리가 참마음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자신을 발견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마음을 이루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비취 보아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변개함이 없는 큰마음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지요.

이번 호에서는 참마음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조건으로 참사랑을 이루어야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랑'만큼 많은 이야기의 주제가 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참사랑 역시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거의 대부분 정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육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참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며 행함과 진실함이 따르는 영적인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함으로 참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7절에 참사랑 곧 영적인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영적인 사랑은 악이 조금도 없고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사랑입니다. 오직 상대의 유익을 구해 주는 사랑이지요. 그런데 영적인 사랑의 극치는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는 것입니다. 진정 상대를 사랑하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지요.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그 사랑이 변함없으며 기꺼이 감사함으로 순교에 이릅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하물며 드리지 못할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고 고백하지만, 막상 주님 앞에 ‘자기’를 다 드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요.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해 사소한 일로 화평이 깨지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1969년, 중미의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월드컵 진출을 놓고 축구 예선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 결과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오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워낙 축구를 사랑하는 나라들이기에 경기 최종 결과에 국가적인 자존심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당시 국경 분쟁 문제와 얽히면서 마침내 전쟁으로까지 발전해 엘살바도르가 온두라스를 침공하면서 발발한 전쟁은 4일 동안 2천여 명의 사망자를 내고 주변 국가들의 중재로 겨우 끝이 났습니다.

흔히 ‘축구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이 전쟁은 자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본보기가 되었지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은 ‘어떻게 그런 일로 전쟁까지 일으킨단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자존심 하나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들 간에, 부부간에, 이웃과 친구 간에 등을 지고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먼저 손을 내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상대가 먼저 내미는 손마저 뿌리치지요. 이것이 다 자존심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저는 주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과 주님을 첫째로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했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것은 버리라, 저것은 하지 말라.” 말씀하시니 제게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아무리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라도 주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즉시로 버렸습니다.

어떤 미련이나 아쉬움도 없었고, 제가 아무리 ‘자존심’이 강하다 해도 주님을 사랑하니 ‘자기’라고 하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물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구와 걸릴 것이 없고 화평이 깨질 일도 없었지요.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버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다면 당연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지요.

또한 성경에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막 12:31) 했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들에게도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맡겨 주신 양 떼에게는 어찌해야겠습니까? 저는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영혼들을 제 몸같이 사랑했습니다. 제 자신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지요. 제가 가진 모든 것, 제 자신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습니다.

영혼들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했고, 그들을 위해 금식했으며, 어찌하든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자 몸과 마음을 다하며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참마음을 이루려면, 첫째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의 선을 이뤄야 하는데
먼저는 자신을 진리에 비취 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개함이 없는 큰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며, 상대를 믿고 신뢰하는 참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중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또한 양 떼들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변함없이 사랑해 왔습니다. 참사랑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잘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잘 안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잘 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며 감사할 줄 압니다.

누가복음 6장 32-33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할 수 있는 참사랑이 있다면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까지도 선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만 내어주고 베푸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주머니가 넉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거나 돕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도 부족한 상황에서 남을 먼저 도와주기란 쉽지 않지요.

교회 개척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구제를 해 오면서 제 주머니가 넉넉해서 구제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부족함 없이 주시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늘 쓸 것을 아끼고, 먹을 것을 아껴서 모으고 또 모아야 하지요. 미리 많이 모아두거나 쌓아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제하며 살아왔습니다.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지요.

또한 제가 여러분을 어찌하든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려는 것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 혼자 새 예루살렘에 가고자 한다면 굳이 이렇게 힘든 길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해서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제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해서라도 함께 갈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떤 주저함도 없이 내어줄 것입니다.

모세 선지자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주님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꼭 같이 새 예루살렘에 가서 영원토록 함께 살 그날을 소망하며, 저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사랑으로 맡겨 주신 영혼들을 대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랑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사랑이며 참마음입니다.

2. 상대를 믿고 신뢰함으로 참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고 행함과 진실함이 따르는 참사랑은 서로 간의 신뢰가 기본입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해도 “아멘.” 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나 핑계를 대지 않고 순종하지요.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무엇을 착각하셨나?’ 이런 생각들은 일절 동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상에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100% 신뢰했던 것을 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어떤 이유를 대거나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로 주신 이삭을 어떻게 짐승처럼 잡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까.’ 하며 실행을 뒤로 미루지도 않았고 심지어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기 위함이었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100%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부부 사이에서 믿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때 사랑한다는 말도 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참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뿐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큰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참사랑을 신속히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과 참사랑을 이루어야 참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마음을 소유하면 위로부터 온전한 믿음이 주어지니 어떤 상황에서도 변개함이 없으며, 하나님 말씀에 100% 순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같이 기도하면 권능이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과도 밝히 교통하는 것입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면 열매가 따릅니다. 건강의 열매, 회춘의 열매, 물질 축복의 열매 등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신속히 이루어 장차 만민이 펼쳐나갈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과 어둠

column **칼럼**

당회장 이재록 목사

아무리 짙은 어둠도 빛이 비취면 물러갑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
어둠에 속한 재앙과 질병, 가난 등
온갖 문제가 떠나게 됩니다.
비록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이라도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빛의 밝기에 차이가 나듯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만큼
축복이 커집니다(요한일서 1:5).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당뇨병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유승열 장로 (48세, 2대대 11교구)

저는 허벅지 뒤쪽과 안쪽에 오랜 피부병이 있었는데, 2017년 여름에는 너무 심해져 가려움으로 밤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밥맛도 떨어지고 갈증이 나서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셨지요.

그러던 2017년 9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공복혈당 수치가 257(mg/dL)로 나온 것입니다. 정상은 100(mg/dL) 미만인 것에 비해 너무 높은 수치였지요. 의사는 추가적인 당뇨병 검사를 권유했고, 약은 반드시 복용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가려움증이 심해진 것과 유난히 목이 말랐던 것도 당뇨 때문임을 그제야 깨달았지요.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왔을까?’ 저는 하나님의 지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나타해진 분야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조는 경우도 많았고, 사명 감당도 의무적으로 하는 분야가 있었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되새기며 행해 나갔고, 잘못된 생활습관과 식습관도 바뀌어 나갔습니다.

물론 약은 전혀 복용하지 않았지요. 그 대신 각종 예배



와 매일 밤 다니엘철야 기도회 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자 3주 후에는 257(mg/dL)이었던 공복혈당 수치가 150(mg/dL)으로 현격히 떨어졌습니다. 이어 138(mg/dL)까지 떨어졌지요. 이희진 목사님에게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은 뒤에는 128(mg/dL)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계심을 느끼며 감사했고, 영육 간에 더 제 자신을 돌아보며 노력해 나가니 공복혈당 수치가 105(mg/dL)로 거의 정

상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저는 온전히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더욱 충성하며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기를 힘써 변함없이 행해 나갔습니다. 2018년 5월, 공복혈당 수치는 완전히 정상이 되어 당뇨병은 물론, 고혈압과 고질적인 피부병까지 한꺼번에 치료해 주셨지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되는 축복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한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딸 승리는 다섯 살 때 아토피성 피부염이 갑자기 온몸에 번져 마치 화상을 입은 듯 허물이 벗겨지고, 진물로 인해 걷기도 힘들어서 업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당회장님의 기도로 치료받아 지금은 피부가 깨끗하고 주 안에서 예쁘게 성장하고 있지요. 아내 성희 권사는 여선교회 일꾼, 성가대원 등으로 충성하며 천국 소망 가운데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권능의 기도로 치료해 주시고, 주 안에서 걱정 근심이 없는 다복한 가정으로 축복해 주신 사랑의 삼위 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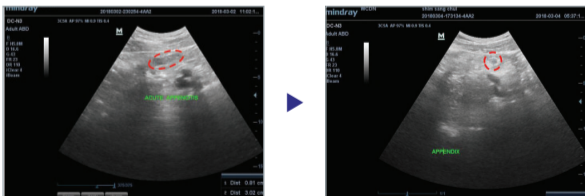


“충수돌기염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심상철 집사(48세, 1대대 8교구)는 2018년 3월 2일 아랫배에 견디기 힘든 통증을 느껴 초음파와 검사를 한 결과 충수돌기염(맹장염)이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분야들을 회개하며 기도할 때 통증이 잦아들었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9)으로 기도를 받은 뒤에는 남은 통증마저 사라졌다. 다음 날인 3월 3일 초음파와 검사 결과, 놀랍게도 팽팽하게 부어서 터지기 직전이었던 충수돌기가 하루 만에 정상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음파 사진



▲ 기도받기 전: 염증으로 인하여 충수돌기의 두께가 0.81 cm로 두꺼워져 있음.
▶ 기도받은 후: 염증이 사라져 충수돌기 두께가 정상으로 회복됨.



“원인 불명의 두드러기를 치료받았습니다”

정승연 자매(26세, 3청년선교회)는 2018년 5월 19일부터 피부가 빨갛게 부어 오르더니 목과 얼굴

전체가 부어올랐고 어깨와 손가락, 팔다리에도 번져 보기에 흉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변함없이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면서 휴대폰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받자 신속히 회복되어 얼굴이 정상적으로 되었고, 27일에는 몸에 남아 있던 흔적까지 모두 사라져 깨끗이 치료되었다.

기도받기 전



국내 지교회, 지정성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73-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9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6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재로 409-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9382-8275
- 무안만민교회 경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개령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분성로 476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7307-2217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7-001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선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선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선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선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선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9458-3922
- 분당지성선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선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6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평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선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선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421-0889, 010-8927-2073
- 일산지성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